

행복한 동행

‘같이 걸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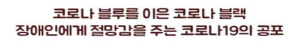
발행일 : 2021년 4월 20일
발행처 : 부송중학교 통합지원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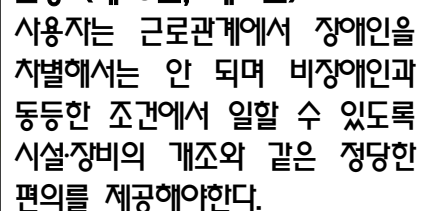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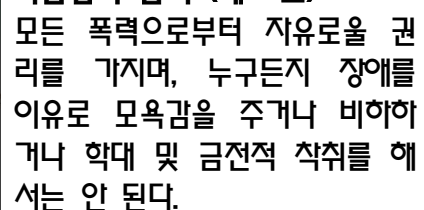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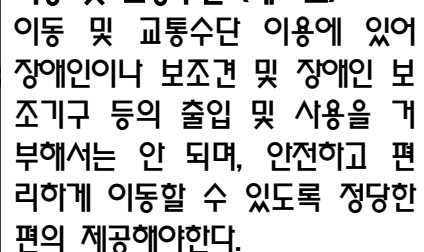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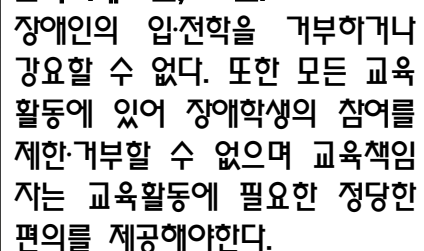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발생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제 연맹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여 세계 각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물론 365일 매일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겠지만 특히 이 날만큼은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되새겨 보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 일시: 2021. 5월(주후안내)
- 장소: 시청각실
- 함께하는 참여형 퀴즈 형식의 연수로 사전에 연수물을 배포
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연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Corona Blue가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Corona Black이었다." (출처: 이민호, 2020,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재난 상황 시 사회적약자를 위한 대응 매뉴얼

장애인과 코로나19

재난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장애인은 재난 앞에서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받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선생님!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재난 문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시각장애인은 지금처럼 글(text)로만 된 재난 문자를 읽을 수 없어요. 게다가 다시 볼 수도 없죠.

선생님, 뉴스에서 봤는데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수어뿐만 아니라 입 모양을 보고 소통하는데 마스크가 입을 가려서 의사소통이 어렵대요!

또,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은 화재경보를 듣지 못해 큰 피해를 입기도 해요.

음... 그럼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떡죠?

그렇죠. 외출하여 약국을 방문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방문하는 약국에 경사로가 없어서 접근조차 어려울 때도 많아요.

경사로 필요!
마스크 대리구매 필요!

사람들은 안전 안내 문자를 보고,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듣고,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삽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서는 일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통합 웹사이트를 만들어졌어요.

바로 액세스코비드19닷컴(accesscovid19.com)입니다!

미국, 뉴질랜드 등 107개국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웹사이트를 개발한 사람은 척수장애가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와 대단해요!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 같은 것이 있나요?

협동조합무의김건호이사

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6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129 영상수어 상담
24시간 문자상담
24시간 음성상담
음성변환
인쇄물 제공

시도 내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지정
선별검사소에 그림 설명판 제공 등

쉬운 글과 그림으로 만든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19 안내서'도 제작하여 배포했어요.

장애인에겐 평등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해 이야기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꼈나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매뉴얼이 계속 보완되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글/그림: 설성정(전북 전주인봉초 교사)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2021 장애공감드라마 '나의 너에게'를 소개해요^^



'베커 근이영양증을 갖게 된 성훈이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장애 이해 교육 드라마'

'나의 너에게'는 장애라는 편견의 벽을 넘어 진짜 친구가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친구, 나의 인생 친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장애이해드라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해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KBS1TV에서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나의 너에게'(감독 박용집·각본 윤혜영)가 방송된다.

올해 열세번째 장애이해교육 드라마인 '나의 너에게'는 베커근이영양증을 갖게 된 성훈(연제형)이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드라마에는 I.O.I 출신 임나영과 배우 연제형이 주연을 맡았고, 이종혁·이일화 등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출연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앞서 2019년에도 장애이해 드라마 '오늘도 안녕'을 집필해 호평을 받은 윤혜영 작가는 '나의 너에게'에 대해 "소외받는 이 없이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말했다. 방송 종료 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세티넷·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유튜브에서도 다시 시청이 가능하며, 시청 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방송소감문 부문에 다음달 17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출처: 머니 투데이 인터넷 기사)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도 못하는' 이 아닌 '~은 잘하는'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